

## 교회 소식

-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연령 제한 없이 3주차 주일부터 예배당에 출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거리 두기 등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교회도 방역과 환기, 예배 순서 및 동선 유지 등 정해진 안전 수칙을 계속해서 지키겠습니다.
- 부활절(4월 4일) 예배 안내
  - 영어 예배: 오전 11시. Zo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 한국어 예배: 오후 1:30. 현장 예배와 YouTube
-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웨체스터 한인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안내
  - 일시: 2021년 4월 4일 주일 새벽 6시
  - 장소: 뉴욕한인제일교회 (송인규 목사 시무)  
5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 "열린말씀 컨퍼런스 2021" 안내
  - 주제: 순행과 역행: 변화의 바람 앞에 선 교회
  - 일시: 3월 21일, 28일 (주) 오후 7:00 - 9:00
  - 감사: 한성윤/노진준/류인현/정대성 목사 등  
미주한인교회 개혁주의 목사들
  - 참가: 유튜브에서 "열린말씀 컨퍼런스"를 검색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ECJxK4Hs8emfAjGq16fuQ>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김동수 장로 (이사야 25:6-9)
- 친교: TBA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 성경 공부 및 모임

- **새가정 성경공부:** 수요일 8pm, Zoom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가정 모임, 3월 24일 수요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은영 집사, 함인옥 집사, 김설희 자매, 김민하 집사)

##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고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뉴욕세광고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Matthew 21:8-15**----- Leader

Sermon ----- “**The Fullness of His Arrival**” --- Pastor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인도자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140(130) “왕 되신 우리 주께” -----다함께

**Hymn**

대표기도 ----- 시 118:1-2, 19-29 -----윤정호 집사

**Prayer**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마가복음 11:11-19**-----인도자

**Word of God**

설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149(147)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1-12

예수님은 작은 자, 잃어버린 자를 귀히 여기는 천국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십자가를 향해 떠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혼에 관해 묻습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마 5:31-32).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이란(마 5:20, 48) 율법의 앞뒤를 꿰뚫는 해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모순된 우리 현실과 율법을 들어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알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이용해 죄악을 정당화하거나, 율법 조문을 지켰다고 의인처럼 행세하며 남을 정죄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된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순종 없이 어떻게 율법을 판단하거나 지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은 온전함은 십자가에서만 얻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결 같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없습니다. 풀로 붙인 종이를 다시 떼는 것처럼 상하는 일 없이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혼장을 내어주라는 율법은, 우리 완악함으로 인해 헤어짐이 있을 수 밖에 없을 때, 그 상하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결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진 눈으로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 보아도 비뚤게 보이는 법입니다. 본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헤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이 있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헤어진 상처를 염려하시는 긍휼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면 헤어져도 되는지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비록 헤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위한 고자”처럼,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신성함은 점점 인기 없는 가르침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면 불륜도 아름답다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동성끼리도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 되려는 죄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시는 쉬운 명입니다.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홀로인 중에도 동행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